

다이쇼인 절: 불상 십일면관음보살상

다이쇼인 절의 본존 중 하나인 십일면관음보살상(머리 위에 11 개의 얼굴이 새겨진 관음상)은 관음당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관음은 동아시아 전역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묘사되어 왔습니다. 십일면관음은 염주와 연꽃을 손에 들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질병과 화재 등 여러 불행으로부터 중생을 구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이쇼인 절의 십일면관음입상은 높이가 약 2m에 이르며, 나뭇잎 모양의 정교한 금빛 후광을 등에 진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십일면관음상보살상의 온화한 표정은 크기에서 느껴지는 당당한 모습은 물론, 불상이 자아내는 차분함, 위엄과는 사뭇 대조적입니다.

불상에 관한 역사는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예로부터 나라 시대(710~794)의 유명한 승려인 교키(668~749)가 제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십일면관음은 수 세기에 걸쳐 이쓰쿠시마 신사에 있었는데, 헤이안 시대(794~1185)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쓰쿠시마 신사에 관한 부분에서 다이쇼인 절의 십일면관음상이나 이와 비슷한 불상에 관한 언급이 수차례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했던 문헌이 1164년, 당시 무사였던 다이라노 기요모리(1118~1181)가 이쓰쿠시마 신사로 보낸 발원문입니다. 다이라노 기요모리는 이쓰쿠시마 신사의 후원자로서 당시 일본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자랑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기요모리는 발원문을 통해 이쓰쿠시마 신사의 관음에 대한 깊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발원문에는 헤이케 납경(다이라 가문의 번영을 기원한 화려한 장식의 경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두루마리로 구성되어 현란하면서도 호화롭게 장식된 헤이케 납경은 다이라 일족의 권력을 상징하는 보물로서 이쓰쿠시마 신사에 봉납되었습니다. 헤이케 납경에는 관음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법화경(法華經)의 전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십일면관음상은 1868년까지 이쓰쿠시마 신사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868년, 정부가 그동안 융합한 형태로 지속되어 온 신도(神道)와 불교의 분리를 명하면서 모든 불상은 신도의 신사에서 옮겨지게 되었고, 갈 곳을 잃은 불상들은 다

이쇼인 절로 옮겨져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십일면관음상은 히로시마 현의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